

朝鮮日報

chosun.com

A14

2007년 2월 27일 화요일 나

부산·경남

韓·日 해저터널 논의되나

許시장,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하다” 언급

허남식(許南植) 부산시장이 한일(韓日)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공식제기하고 나섰다. 이로써 한일 해저터널 건설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 시장은 26일 오전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산의) 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부산시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 해저터널 문제를 언급했다.

이 언급에 대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일본측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

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허 시장은 “부산은 일본과의 교류, 경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찬반·장단점·득실을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찬반양론 등 논란이 있다고 해서 논의 자체도 해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산발적 논의가 있어왔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부산이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부산이므로 부산시가 나서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기자

朝鮮日報 2007年2月27日

日韓海底トンネル論議になるのか

許市長、「真剣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言及

ホ・ナムシク（許南植）釜山市長が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の妥当性等に対する論議を公式に提起した。これにより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問題に対する賛否両論が再燃すると予想されている。

ホ市長は26日午前、10大政策課題を発表する記者会見を行い「(釜山の)地政学的な位相を考慮すると、釜山市が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問題について真剣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し、日韓海底トンネル問題に言及した。

この言及に対し「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は日本側が有利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主張がある」という質問が出ると、ホ市長は「釜山は日本との交流、経済的な協力が非常に重要なので、その必要性和妥当性はもちろんのこと賛否・長短所・得失を検討し論議する必要がある」とし「賛否両論などの議論があるといって論議自体もしないことは問題である」と話した。

ホ市長はまた「これまでこの問題に対し、散発的な論議はあったが、その論議の中心には釜山があり、最も大きな影響を受けるのも釜山なので、釜山市が乗り出し深く検討して論議することは意味があると思う」と強調した。